

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 2

문화사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민족출판사

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 2

문 학 사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文学史 / 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编. — 北京: 民族出版社, 2006. 12

(中国朝鲜族文化史大系; 2)

ISBN 7-105-08064-7

I. 文... II. 北... III. 朝鲜族-文学史-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07.91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154313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艺辉印刷有限公司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6年12月第1版 2006年12月北京第1次印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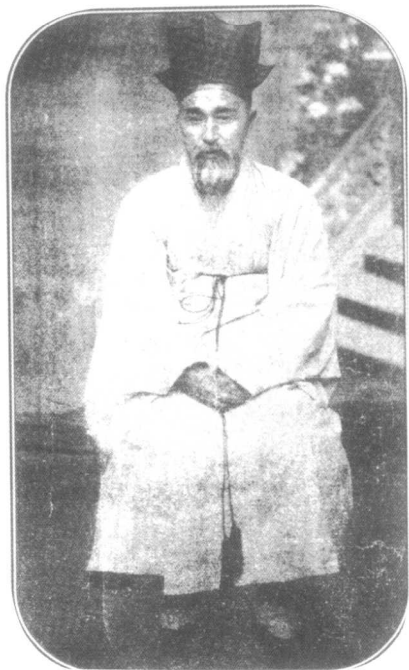
开本: 850毫米×1168毫米 1/32 印张: 24.25

字数: 683千字 定价: 48.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시인 김택영(1850년—1927년)



시인 신 정(1879년—1922년)



소설가 신채호(1880년—1936년)



소설가 강경애(1906년—1944년)



소설가 현경준(1909년—1950년)



소설가 안수길(1911년—1977년)



소설가 김창걸(1911년—1991년)

시인 리육(1907년—1984년)



시인 김조규(1914년—1990년)



시인 윤동주(1917년—1945년)



소설가 김학철(1916년—2001년)



아동문학가 채택룡(1913년—1997년)



아동문학가 김례삼(1913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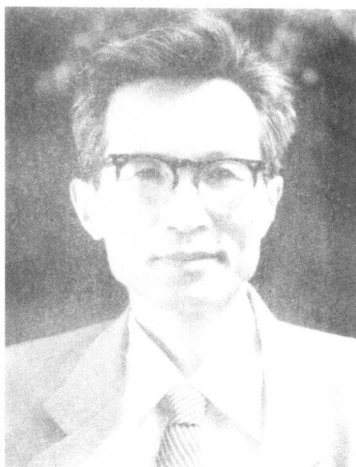
시인 임효원(1926년—2006년)



시인 김철(1932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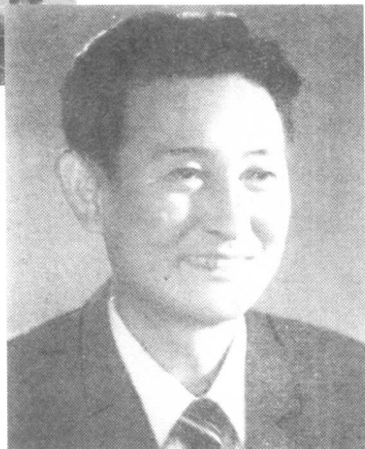
소설가 리근전(1929년—1997년)



시인 김성휘(1933년—1990년)



시인 조롱남(1935년생)



소설가 림원춘(1937년생)



소설가 정세봉(1943년생)



소설가 리원길(1944년생)



평론가 정판룡(1931년—2001년)



평론가 조성일(1936년생)



아동문학작가들(1998년)



민담구술가 황구연(1909년—1987년)



민담구술가 김덕순(1900년—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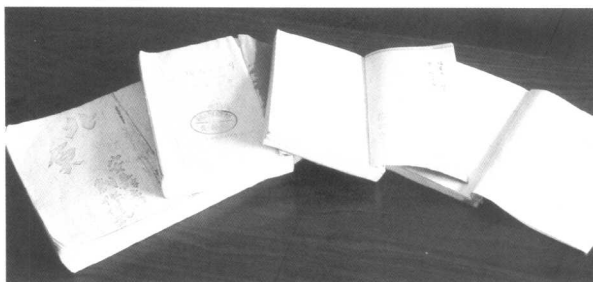
판소리가수 차병걸(1925년생)



동북3성의 일부 구비문학수집자들(1982년)



해방전에 출판된 조선문간행물들



해방전에 출판된 문학작품집들



해방후에 출간된 문학지들



해방후에 출간된 일부 시집과 소설들

간행사

조선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있는 위대한 민족이다.

지난 19세기부터 압록강, 두만강 이남의 조선반도로부터 이주한 중국의 조선민족은 조선에서 이미 우수한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 형성된 뒤에 중국땅에 건너왔다. 그들은 조선반도의 인민들과 한피줄을 타고난 동일민족으로서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의 사회력사발전단계를 함께 경유하면서 민족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워왔다. 중국에 이주한 이후 그들은 반만년의 풍부한 민족문화유산을 토대로 하고 그 전통을 계승, 발양하면서 중국문화의 태두리속에서 화하(华夏) 문화의 자양분을 부단히 섭취하여 점차 자기의 주체를 확립하였다. 그러므로 중국 조선민족문화는 중국 다민족문화의 구성부분인 동시에 세계적범위에서의 조선민족 정체(整體)문화의 일부분이다. 이처럼 이중성격을 지닌 중국 조선민족문화는 조선민족의 전통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중국 및 주변 국가 여러 민족 문화들과의 상호 교류와 영향속에서 자기의 좌표를 한결 뚜렷이 하였으며 광활한 중국의 동북대지를 활무대로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고유한 민족적 정기와 향기를 무르익혀왔다.

190여만명이나 되는 중국의 조선민족은 반일투쟁의 특수한 력사적배경하에서 장성되고 민족자치의 독자적자태를 가지고 줄기차게 발전해온 어엿한 민족으로서 백여년사이에 자기의 총명과 지혜를 다하고 억척스럽게 노력, 분투하여 세계 다민족문화사의 찬란한 한페지를 장식하였다.

민족문화유산을 집대성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1980년대 중기부터 중국의 연변대학, 북경대학, 중앙민족대학과 길림성사회과학원의 조선민족문화사 학자들은 《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를 집필하기로 결정했다. 1988년 6월에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에서는 이 사업을 본 연구소의 중점과학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대계편집위원회의 조직사업을 다그쳤다. 그해 7월에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에서는 [정판룡], 최응구를 주임으로, 김동훈, 리선한을 정, 부비서장으로 한 편집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같은 해 10월 1일에 아름다운 변강도시 연길에서 제1차 《문화사대계》집필자 전체회의를 열고 정식으로 《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 편집방안》(초안)을 통과하였으며 [정판룡], 최응구를 주필로, 김동훈, 리선한, 류은종을 부주필로, 김동훈, 김현대, 권철, 리선한, [리철준], 박창목, 박창옥, [정판룡], [최수한], 최순덕, 최응구, [한승악], 허청선, 안병호, 오태호, 윤학주를 편집위원(7인)으로 한 편집지도기구를 내왔으며 그 산하에 11개의 집필소조를 두고 언어, 문학, 예술, 교육, 사상, 종교, 민속, 신문출판, 과학기술, 의료보건, 체육을 망라한 문화 제 분야의 40여명의 우수한 학자들을 저자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정작 집필에 착수하자고 보니 곤난이 막심하였다. 그 하나는 경험이 부족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문헌자료와 민간의 인물자료들이 많이 소실되었기때문에 일부 사실의 전후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높은 민족적사명감을 지니고 서슴없이 이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분공에 따라 조사제강을 작성하고 산간벽지와 크고작은 도시들을 찾아다니며 수백, 수천명의 관계인사들을 방문하고 중국 각지의 도서관, 박물관과 역사당안관을 찾아다니면서 청나라말기, 민국시기, 괴뢰만주국시기와 광복이후의 수백종, 수천만건에 달하는 신문, 잡지, 문헌과 기타 자료들을 뒤져가며 수많은 문화사료들을 수집, 발굴하였다. 그다음 조사해온 자료들을 집중하여 심중하게 연구, 분석한 기초에서 상세한 집필대강을 작성하고 선후로 집필에 달라붙었다. 1991년 신미

(辛未)년 음력설을 앞두고 편집위원회는 학술토론회를 열고 집필과정에 제기된 몇가지 원칙적인 문제들을 토의하고 문화사연구방면에 대한 인식을 가일층 높였다.

수년간 끈질기게 노력한 보람으로 《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는 1994년부터 출판에 교부되어 이미 8권이 간행되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연구에서 거둔 보람찬 성과의 하나이다. 《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는 모두 11권으로 되어있다.

- 제1권 언어사(1995년 10월 간행)
- 제2권 문학사(2006년 12월 간행)
- 제3권 예술사(1994년 5월 간행)
- 제4권 교육사(1997년 2월 간행)
- 제5권 사상사(2006년 11월 간행)
- 제6권 종교사(2006년 11월 간행)
- 제7권 민속사(2000년 11월 간행)
- 제8권 신문출판사(1999년 7월 간행)
- 제9권 과학기술사(2003년 11월 간행)
- 제10권 의료보건사(2005년 7월 간행)
- 제11권 체육사(1998년 4월 간행)

상기한 여러 분책의 저자들은 우리 민족 문화발전의 역사적흐름, 맥락과 그 합법칙성을 모색하고 그것에 역사적지위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문화사를 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다는것은 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저자들이 문화사연구경험이 결핍하고 사료가 완비하지 못한 형편에서 집필하였으므로 오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내외 학자들과 독자들로부터 기탄없는 비평과 조언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는바이다.

이 《문화사대계》의 편집진의 구성으로부터 매 분책의 집필, 출간

에 이르기까지 이미 18성상의 기나긴 세월이 흘러갔다. 이 과정에서 본 대계의 주필 정판룡, 부주필 리철준과 편집위원 최수한, 한승악 등 우수한 학자들이 선후로 세상을 뜨시었다. 우리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명복을 빙과 더불어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그분들이 채 완수하지 못한 이 대계의 출간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지을것이다. 본 대계 편집위원회는 지금의 편집진 인사변화에 근거하여 최웅구를 명예주필로, 김동훈, 리선한을 주필로 조정하며 방종혁, 김룡호, 김창수, 류병호를 편집위원으로 보충한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문화사대계》의 출판문제를 두고 걱정하고있을 때 적지 않은 경비난이 있으면서도 이 방대한 량의 출판임무를 선뜻이 맡아나선 민족출판사 편집일군들의 민족문화발전에 대한 높은 책임심과 헌신적인 사업정신이다. 만일 그들의 지지성원이 없었다면 이 책의 출판계획은 무산될수도 있었을것이다. 이 책의 출판에 즈음하여 우리는 《문화사대계》의 편집출판을 선뜻이 담당해주신 민족출판사 조선문편집실 전체 편집일군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바이다.

《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 편집위원회

2005년 5월

차례

제1편 시문학사

제1장 이주초기로부터 1931년까지의 시문학	2
제1절 한시와 시조	2
제2절 창가와 자유시	6
제3절 김택영, 신정, 신채호의 시	12
제2장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문학	21
제1절 이 시기 시문학 개관	21
제2절 윤동주의 시	23
제3절 김조규와 류치환의 시	29
제4절 송철리와 천청송의 시	42
제5절 함형수와 리옥의 시	47
제6절 항일혁명가요	56
제3장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시문학	65
제4장 1949년부터 1976년까지의 시문학	73
제1절 이 시기 시문학 개관	73
제2절 공화국 창건후 리옥의 시	76
제3절 임효원과 김철의 시	79

제4절 이 시기 기타 시인들의 시	85
제5장 1976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문학	90
제1절 이 시기 시문학 개관	90
제2절 새 시기 김철의 시	99
제3절 김성휘의 시	103
제4절 조룡남의 시	113
제5절 리상각의 시	118
제6절 이 시기 기타 시인들의 시	123
제6장 20세기 최후 10년의 시문학	127
제1절 이 시기 시문학 개관	127
제2절 이 시기 대표적 시인과 시	130

제2편 소설사

제1장 이주초기로부터 1931년까지의 소설	148
제1절 이 시기 력사현실과 현대소설의 발전	148
제2절 신채호의 소설	154
제3절 주요섭, 최상덕의 소설	164
제2장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소설	172
제1절 이 시기 정치문화적현실과 현대소설	172
제2절 강경애의 소설	176
제3절 현경준, 김창걸의 소설	185
제4절 안수길, 박영준의 소설	199
제5절 황건, 최명익, 김광주의 소설	209